

데스크 시국



김미은 편집부국장 겸 문화부장

불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찬 메일함을 열어 보는 건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이 되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메일함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12월부터 받고 있는 한 통의 메일 덕분이다. 우연히 인터넷에 발견해 신청한 '어쿠스틱 위클리'(Acoustic Weekly : 음악과 이야기를 배송해 주는 메일링 서비스)로부터 음악이 첨부된 메일을 받고 있다. 피아노 전공자가 다양한 주제로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성스럽게 선정한 관련 영상을 링크해 걸어 준다.

33년간 홀로 세운 궁전

아는 곡도 있지만 때론 낯선 곡을 접하기도 하는데, 세상의 무궁무진한 음악을 속에서 근사한 길라잡이를 만난 듯하다. 최근엔 소팽의 '피아노 전주곡 E단조'를 재즈 음악으로 만났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푸치니 '잔니 스카키'의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도 즐겁게 들었다. 운영자는 지금까지 55편의 편지를 보냈고, 연말에는 나처럼 뒤늦게 편지를 받아 본 이들을 위해 이미 소개한 음악을 한꺼번에 전해 주기도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또 다른 음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참 좋았다.

집에만 처박혀 '집콕'했던 설날 연휴 동안 책을 통해 한 인물을 만났다. 프랑스 작곡 마을 오펜카르에 '이상의 궁전'(팔레 이데알)을 지은 페르디낭 슈발(1836~

은펜칼럼



박형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새해 첫날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 음력설마저 지났다. 한 해를 맞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다짐하기에 새해 첫날은 특별하다.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와 운동, 금연, 금주, 그리고 자기 계발을 위하여 외국어 학습, 독서, 일기쓰기, 또는 저축 등 다양한 계획들을 세운다. 하지만 이들은 희망 사항일 뿐,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비단 우리만이 경험하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왜 필요해서 세운 계획을 실천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거?'라는 질문은 소크라테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혀 온 아주 오래 된 주제라고 한다. 이는 현대에도 다양한 분야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우수한 의과대학(UCLA)의 로버트 마우어(Robert Maurer)교수는 22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를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서 설명한다. 그는 혁신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속도 지향적인 인간의 과욕을

기고



성윤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얼마 전 모 언론매체를 통해 고인류의 남녀 역할에 대한 이상희 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캠퍼스 인류학과)의 기고문을 접한 적이 있다. 남성은 체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수렵을,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육아를 담당하였다는 고인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사회적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고인류가 성별 분업을 했다는 증거도, 여성은 출산·육아만 담당했다는 증거도, 남성은 나머지 일에만 전념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한 것이다.

박물관 전시실에 가면, 역사시대 이전 코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형, 즉 남자는 창을 들고 야생동물을 잡고,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거나,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몇 해 전 개봉한 영화 '원더 우먼'은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여성 영웅(Hero)을 그린 것으로, 악(惡)의 무리에 맞서 거침없이 싸우는 여전사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뇌리에 남아 있다. 이 같은 고인류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이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서 확인된다면 어떨까?

화요일의 음악 편지

1924)이다. 매일 30km씩 걸으며 우편물을 배달하던 슈발은 편지에 붙은 우표나 그림엽서를 보며 상상의 나라를 떠돌았다. 43세가 되던 해 이상하게 생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그는 신기하게 생긴 돌맹이를 들여다보다가 “늘 꾸꾸운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고 다짐하게 된다. 건축학이나 토목 기술도 배운 바 없었던 그는 이때부터 낮에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밤에는 길에서 주워 온 돌맹이와 조개껍데기를 쌓아 홀로 궁전을 짓기 시작한다. 드디어 76세가 되던 해, 33년의 긴 세월을 지나 '이상의 궁전'이 완성됐고, 1969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역사 유적으로 인정받았다.

글을 읽자마자 관련 사진을 찾아봤다. 독특한 형상의 건물은 더욱 호기심을 자아냈다. 어찌 보면 조잡한 것 같기도 했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성 있는 건물이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낸 한 인간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새해가 밝고 계획 몇 개쯤은 세워 보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을 여영부영 보내 버린 나 같은 많은 이들은 설날을 맞아 '또다시' 계획을 세웠으리라. 올해는 문화예술과 친구가 되는 '딜레탕트 아티스트'(dilettante artist)를 꿈꿔 보는 건 어떨까. 이탈리아어의 '즐거다'(dilettare)에서 비롯된 이 말은 '예술이나 학문 따위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삼아 하거나 애호하는 사람'을 뜻한다.

우선은 예술과 친해지는 것이 먼저다.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잡배원'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목요일 시와 소설 문장을 배달해 주는데, 작가들이 고른 문장을 성우 내레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사람이면 읽고, 보고,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생산자'가 되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슈발처럼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담은 소소한 결과물을 받아볼 때의 행복감은 그 어느 것에도 비기지 못하리라.

얼마 전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와 함께 광산 구 이야기꽃도서관 그림책 전시회에 갔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다. 전시된 10권의 책을 본 나의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와, ‘진짜 그림책’ 같네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제작한 이 그림책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함께 간 이는 올해만큼은 꼭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무궁무진 예술의 세계로

가디언 편집장을 지낸 앨런 러스브리지의 '다시, 피아노'도 도전 정신을 부추기는 책이다. 소팽 '발라드 1번 G단조'를 1년 안에 연습해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위키리크스 파문,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사건 취재를 진두지휘하면서도 목표를 이뤄 냈다.

문화예술은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책 애호가라면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서클럽에 관심을 가져 봐도 괜찮을 것이다. 더군다나 5인 이상이면 최고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따뜻한 봄이 되면 공모에 선정된 문화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할 터다. 놓치지 말고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보기를.

'아날로그 인간'인 나는 얼마 전 처음으로 'e북'을 접한 뒤 보고 싶은 잡지의 과월호(過月號)를 구입해 보고 있다. 아직은 손으로 직접 만져 보는 종이책의 물성을 훨씬 좋아하지만, 새로운 세계로 첫발을 내디딘 듯해 조금 뿌듯하기도 했다.

/mekim@kwangju.co.kr

새해 결심과 유언실행(有言實行)

결심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우리 몸은 새로운 욕구와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맞서 뇌에서는 큰 변화를 거부하고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그는 일관되게 아주 작은 변화를 점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뇌를 속이는' 스톱 스텝(stop step) 전략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한 달 동안 음식을 먹기 전에 한 입 털어 놓고, 두 번째 달에는 두 입을, 세 번째 달에는 세 입을 줄여서 아주 천천히 적량에 도달하기까지 빠지기 방식을 권한다. 운동을 목표로 세웠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더하기 방식의 스톱 스텝을 적용하라고 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피터 싱어(Peter Singer) 교수는 윤리 문제를 다룬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미래를 가지 있게 만드는 83가지 질문을 한다. 그중 77번째 주제가 '새해 결심을 지키려면'이다. 그 역시 실패 원인으로 실천하기 힘든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 즉 과욕을 지적한다. 그가 제시하는 실행 방법은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고 세부 단계를 달성할 때 마다 스스로에게 보상하며 점검하고, 자신의 결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유언실행(有言實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언실행은 말로 자신의 행위를 묶는 결심 선언인 셈이다.

어쨌든 많은 경우, 결심이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난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힘은 3일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 고비인 3주를 목표로 자신을 다잡을 수도 있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된다. 그러나 두 번째 3개월이 되는 6월까지도 안정기에 들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연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을 반년 넘게 지키는 사람은 절반이 못 되고,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작심삼일이 마음 먹은 것 삼일이 못 간다는 뜻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꼬집는 말로 쓰이지만 3일 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매주 두 번만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작심삼일을 확장하여 작심삼십일(作心三十日)로 잡고 실행중이다. 연초에 네달어 신약성경 12회 청독(淸讀)과 독서 30권 이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학생이나 바쁜 직장인이자면 이는 과욕일 수 있지만, 70 중반 백수에게는 남은 것이 시간이다.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읽고 월말까지 일독을 하면 책거리를 하고, 월초에 다시 시작한다. 책은 한 달에 두세 권 읽으면 되는데 지 가까이 도서관이 있어서 읽고 싶은 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글은 2021년 새해 결심이 벌써 흐지부지해진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필자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언실행의 방편이다. 양력설을 지내고 한 달 여 시간자를 둔 음력설은 새해 첫날에 세운 계획들을 재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라고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인 것 같다.

나주 정춘고분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을까?

바로 나주 북암리에 있는 정춘고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춘고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굴 조사되었는데, 2014년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이 금동신발은 현재 남아 있는 20여 점 중 가장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좌우측판과 바닥판은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그중 뱀처럼 긴 신체의 양쪽 끝에 사람 형상의 머리 두 개가 연결된 일신양두(一身兩頭) 문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금동신발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 문양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고구려 벽화고분 중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에서 확인되었다. 팔각형의 널방(女室) 천정 북쪽에 그려진 지신(地神)은 뱀처럼 긴 신체 주변에 '지신'(地神)이라는 묵서명이 있어서, 이 문양이 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왕지신총이라는 명칭은 이 고분에 '천왕'(天王)과 '지신'(地神)이 그려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천왕이 그려진 곳에도 역시 '천왕'(天王)이라는 명문이 있다.

우리네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음양(陰陽)의 조화를 나타내는 '하늘은 양기(陽氣), 땅은 음기(陰氣)'라거나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라는 인식이 있다. 그렇다면 금동신발에 천왕은 없고 지신만 확인된다는 것은 이 신발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의미일까?

실제로 정춘고분 1호 석실에서는 목관 3개와 인골 2개체분이 확인되었다. 인골 중 1개체분은 석실 중앙에 위치한 3호 목관의 것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금동신발은 3호 목관에서 출토되었다. 결과적으로 3호 목관에 매장되었던 사람은 여성임

과 동시에 금동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3호 목관 동쪽에서 출토된 금동장신구의 잔편들이 금동관 편일 수 있다는 최근 연구 성과가 있어, 이 여성이 금동신발은 물론 금동관과 함께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존에 발굴 조사되었던 고분 출토품 중 무기류 즉 환두대도(고리손잡이큰칼), 장식대도(장식큰칼), 장식철도자(장식쇠손칼)나 마구류(馬具類) 등이 출토되던 대부분 고 피장자는 남성으로, 금속제 귀걸이(金銅耳飾)나 구슬류 등 장신구가 출토되던 여성으로 생 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정춘고분 3호 목관 주변에서도 무기류인 소환 두도(작은고리손잡이칼), 철도자(쇠손칼)와 장신구인 귀걸이(耳飾), 구슬류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자연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3호 목관의 인골이 여성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출토품의 성격에 따라 피장자 성별을 구분하였던 기존 조사 방법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하다.

금동신발에 장식된 여러 문양에는 청동늪과 함께 부식되어 알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천왕'의 문양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금동신발에 '지신'의 문양만 있다고 한다면, 정춘고분 1호 석실은 금동신발을 신었던 여성이 주인공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겨왔던 성(性) 역할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社說

광주GGM 안전불감증인가 형식적 점검인가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당국의 관리 감독 중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3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별개로 11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GGM에서는 지난달 23일 시설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이뤄진 근로감독에서 확인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작동 등 13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

라는 이유를 들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노동청은 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지난해 8월 여성 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어 숨진 뒤 실시된 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도 적발된 사항이 많아 회사 측의 안이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23건)을 적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근로감독 대신 산재사고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 조치 외에 근로감독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 늘릴 필요 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신체적 폭력이나 유기·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 아동 학대 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아동 학대 대응 체계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신체적 폭력이나 유기·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 아동 학대 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아동 학대 대응 체계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그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24%)이고,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은 102곳(4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접수되는 아동 학대 의심 사례 50건 당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은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공무원 1인당 156건, 전남은 112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떠안고 있는 셈인데, 이는 서울(55건)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 지역은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1089건(지난 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21.8명의 전담 공무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5개 자치구 중 북구와 광산구에만 7명이 배치된

정부는 지난달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전담 공무원 확충 계획을 내렸고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연내 증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보다 과감한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특히 현실과 괴리된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 소멸'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 3만 명 규모는 웬만한 대도시의 동(洞)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방 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 3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18곳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기초단체는 두 곳 이 포함됐다. 구례군(2만5573명)과 곡성군(2만7982명)이 이에 해당된다. 인구 3만 명 미만 기준이 아닌 '인구 소멸 위험지수'로 보면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인구 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전남 지역의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소멸 위험 지역' 또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석된다. 특히 30~40대 학부모들의 타 지역 이주가 겹치면서 학생 수도 급감해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남의 폐교 수는 828 개에 달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태어나

서 자라고 살아온 고향에는 이미 '모교'도 사라졌을 수 있겠다. 자칫 10년 후면 우리들의 고향마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지방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수사다.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출산 및 인구 늘리기 정책을 쏟아 낸다. 아울러 국회에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많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기도 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도 그럴싸한 슬로건만 내걸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경제 부 220-0663 사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 사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